

사회

아파트 고드름 제거중 추락사 한 소방관

국가유공자 커닝 순직처리도 어려워

광주시소방본부 "대민지원도 주요업무·소방법 개정"

아파트에서 고드름을 제거하던 중 사고로 숨진 소방관(광주일보 1월 24일 7면)에 대한 순직 심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소방본부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 소방교의 순직 여부는 오는 3월 말께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순직심사위는 소방법 등을 고려해 이 소방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만 순직군경과 유족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아파트에 매달린 고드름 제거 작업, 즉 대민 지원활동 중 추락해 숨진 이 소방교는 사실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계절에 따라 고드름 및 발집 제거, 배수 및 급수지원 등 한 달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반영한 소방법 개정과 함께 이 소방교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관들 '물과의 전쟁'

구제역·AI로 2만9740t 공급 방역용수 동나

겨울철 화재와 싸워야 할 소방관들이 때 아닌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수시로 오가며 방역용수를 공급한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일부 방역초소의 경우 하루에도 수 차례씩 방역용수가 동나는 경우가 많다.



목포지역 초등학생들

내달부터 전원 무상급식

3월부터 목포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던 무상급식을 다음 달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수 익산시장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이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재훈)는 18일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손바닥 체벌' 교사에 배상 책임

법원 "254만원 지급하라"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학습태도가 좋지 않던 7살 어린이의 손바닥을 수습차례 회초리로 때린 교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노씨는 2008년 11월 제자인 조씨가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자 나무 회초리로 조씨의 손바닥을 40여회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구청 청원경찰, 공무원 업무 논란

교통단속·산불감시 등 수행...대우는 계약직 수준

광주시 각 구청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노점·불법 주정차 단속 등 기능직·행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과 진급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신분 불안정하고, 봉급 및 수당도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모 구청 청원경찰 10년차 월급(본봉)은 약 136만원. 반면,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8급 145만원으로 직급수당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격차가 더 크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봄이 왔나봐"

로 물든 복구 운동장 화훼단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9.8도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해진 18일, 형형색색으로 물든 복구 운동장 화훼단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KBS사장 5·18국립묘지 참배 김민규 KBS 사장이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했다. KBS사장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제공>

Weather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howing temperatures and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Mokpo, and Jeonju.

생활 게시판

화족 ▲이상태(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홍영옥씨 삼남 민(고려중교사) 군 윤진구(사업)·고영심씨 장녀 유현(전남대병원 원무과)양=19일(토) 12시 30분 광주 조선컨벤션웨딩 1층. ▲조옥자씨 차남 최정훈군 주재호·양영심씨 막내 선옥양=19일(토) 12시 30분 호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Obituary notices for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names like 박정심씨, 김경희씨, and 김희현씨, with details on funeral services and dates.

수원지구 고실초 50명

성덕중에 재배정 결정

광주시교육청이 졸속 배정의 비난 <광주일보 2월 12일 3면>을 불러왔던 광산구 수원지구 50여명의 초등학생을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박인화 교육의원, 광산구의원, 학부모 대표 등과 시 교육청 관계자 등이 만나 고실초 졸업생 50여명을 인접 성덕중학교에 사실상 재배정하기로 했다.